

해제: '문화영화로 보는 한국의 재테크와 금융' 컬렉션

한나리 (영화사 연구자)

* 컬렉션 공개일 2024.10.29.

국가 기념일 지정과 폐지는 정치와 사회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는 명확한 지표라 할 수 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국민은 국가와 경제적 운명을 함께하는 주체로 동원되어 국가의 경제적 위기가 있을 때마다 자의적·타의적으로 국가의 살림에 쏟ित 돈을 보냈다. '국민의 저축 정신을 양양하고 저축·보험·금융 산업의 진흥'을 위해 1964년에 처음 제정된 '저축의 날'은 그러한 시기를 상징하는 지표였다. 1964년 제정되어 2015년까지 52년간 계속되어 온 '저축의 날'은 2016년 '금융의 날'로 개명 및 흡수되었다.¹⁾ 한때 저축은 가장 지배적인 금융 수단이자 국가가 강조하는 미덕이었지만, 시대의 변화 속에서 다양한 재테크 수단 중 하나의 선택권이 되었으며, 더 이상 돈을 모으는 행위는 국가가 앞장서 장려할 만큼의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된 시대적 변화를 짐작할 수 있다.

한국영상자료원은 2022년부터 다양한 주제로 큐레이션한 문화영화 목록을 컬렉션으로 공개하고 있는데, 올해 공개하는 문화영화 컬렉션의 주제는 '한국의 재테크와

일러두기

1. 본문에 언급되는 KOFA 소장 문화영화 제명을 클릭하면 해당 작품의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이 글의 저작권은 필자와 한국영상자료원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제와 복제를 금합니다. 해제 글을 인용할 시, 필자명 및 출처를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컬렉션 자료를 인용할 경우, 자료의 출처를 반드시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표시 예: 한국영상자료원 컬렉션 「문화영화로 보는 한국의 재테크와 금융」)

금융'이다. 식민 통치와 한국전쟁을 거치며 가난할 대로 가난해진 이 나라가 '잘 살기' 위해서는 근로나 사업 외에도 금전을 융통하여 돈을 불리는 영역은 중요하게 인식될 수밖에 없었다. 국가는 경제 재건을 위해 서민들의 저축을 적극적으로 권장했다. 한국의 현대사에서 저축은 가정을 위한 실질적 행위인 동시에 국가를 위한 애국적이고 윤리적인 행위이며, 돈을 항아리에 묻어놓거나 계를 통해 불리던 것에서 나아가 현대화된 계몽의 행위였다. 이러한 맥락을 배경으로 볼 때 저축과 같은 금융 행위는 적극적으로 선전되었을 것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국가, 혹은 공공적 입장에서 선택한 이 금융 장려의 가장 효과적인 선전 양상은 어떠한 것이었을까. 이번 컬렉션에 포함되는 작품에서는 국가의 경제 재건에 있어 하나의 원동력이 되었던 범국민적 금융 행위가 문화영화라는 영역에서 선전되는 양상을 구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다. '돈'을 위해 '돈'을 돌게 만드는 것, 돈을 '놀리는' 것은 각 시기별로 어떤 지향점과 함께 제시되었으며, 어떠한 덕목으로 그려졌는가.

1) '저축의 날'은 1964년 최초 제정 당시 9월 21일로 지정되었다가 1966년에 9월 25일로, 1973년에 10월 25일로 변경되었다. 이후 1984년, 10월 마지막 주 화요일로 변경되었고 2016년, '금융의 날'로 이름을 바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우선 본 컬렉션의 전반적인 경향에 있어 주지해야 할 점이 두 가지 있다. 첫째는 ‘저축의 날’이라는 지표가 등장한 시기를 통해 짐작할 수 있듯이, 이 서민 금융의 적극적인 권장과 선전은 박정희 정권 시기에 가장 활발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공개한 한국영상자료원의 문화영화 컬렉션(「문화영화로 보는 위생과 국민보건」, 「문화영화와 한국전쟁」, 「문화영화로 보는 어린이와 청소년」, 「문화영화와 환경」)이 작품 편수와 제작 경향을 통해 정권별/시기별로 해당 주제를 다루는 태도의 변천을 훑어갈 수 있었던 것과 달리, 이번 「문화영화로 보는 한국의 재테크와 금융」 컬렉션은 시대의 변화에 있어서는 크게 두 가지 대조 지점만을 보여준다. 즉, 경제 개발이 최우선의 목적이었고 시급했던 시기(박정희 정권)와 어느 정도의 경제적 목표 달성 이후 국제화·도시화 등의 담론이 융합되기 시작하던 시기(5공화국 이후)를 비교해 보는 것이다. 한편 이번 컬렉션에 포함된 73편의 작품(한국영상자료원(KOFA) 및 타 기관 VOD 소장 작품을 망라한 수량임_편집자 주) 중 53편이 박정희 정권 시기의 작품이라는 점에서, 이번 컬렉션은 시기별 대조보다는 박정희 정권 시기의 경제 기조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데 보다 유용한 틀이라고도 이해될 수 있다.

두 번째는 작품의 내용상 주제를 세분화하기가 힘들었다는 점이다. ‘금융’은 ‘금전을 융통’하는 것으로, 보편적으로는 저축, 주식투자, 채권 등으로 인식되지만 저축성 보험과 같이 보험 또한 금융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상품이 많으며, 영상 작품에서도 금전을 융통하고 증식해 나가는 것을 권장하는 데에 저축뿐 아니라 보험과 증권, 채권, 대출 등을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있었다. 더불어 그에 필요한 가계 절약에 대한 제언과 금융기관에 대한 교육적 내용을 함께 포함하고 있었다. 따라서 작품을 세부 영역으로 구분하는 것이 불가하여 폭넓게 ‘금융’으로 한데 묶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돈이

연대별·소장처별 컬렉션 작품 규모

연대 세부 주제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규모(계)		
	①	②	소계	①	②	소계	①	②	소계	①	②	소계	①	②	계
금융	12	7	19	22	2	24	2	6	8	8	-	8	44	15	59
부동산	3	2	5	4	1	5	1	1	2	1	1	2	9	5	14
규모(계)	15	9	24	26	3	29	3	7	10	9	1	10	53	20	73

※ ①은 KOFA 소장, ②는 타 기관 VOD 소장(KOFA 미소장)을 의미함.

가장 집약적으로 몰리는 곳이자 재산 증식을 위한 재테크 방식으로서의 부동산은 금전에 한정된 금융상품과는 별개로 분리하여 살펴보기로 하였다. 부동산은 한국사회의 자산 증식 영역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금전의 융통과는 구분되기 때문이다. 경제 및 국민 생활 복구의 차원에서 강조했던 ‘내 집 마련’ 기조를 중심으로 부동산은 새로운 부의 축적 방법이 되어 금융과 재테크 방식의 판도를 변화시켰다. 대규모의 주택 공급이 불러온 지가(地價) 상승과 금융자본의 편중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부동산 불패 신화 형성과 무관하지 않다. 따라서 자산 증식의 방법론적 변화를 획기적으로 가져온 부동산은 다른 금융상품과는 다른 관점에서 살펴보기로 하였다.

이번 컬렉션에 포함되는 문화영화는 한국영상자료원이 필름, 시나리오, 심의서류 등을 소장하고 있는 작품(53편)과 한국정책방송원 및 국가기록원 등이 VOD를 소장하고 있는 작품(20편)을 포함해 총 73편으로, 소장처 및 제작연대별 보유작품 규모는 위의 표와 같다. 다음에서는 이 73편을 특정 주제별로 분류하여 수량에 근거한 흐름을 읽기보다는, 개별 작품의 예증을 통하여 몇 가지 특징적인 지점들을 살펴보겠다.

1. 공적 행위로서의 저축

국립영화제작소의 1976년도 작품 <행복으로 가는 길>(김성인; KOFA 16mm-35mm RP 소장)에서는 “저축은 국력이다”라는 표어가 등장한다. 컬렉션에 포함된 상당수의 작품은 가난한 정부와 국민의 공동체적 운명을 강조하고 있다. 저축은 그 운명 공동체가 함께 잘 살기 위해 가장 손쉽고 가장 즉각적으로 효용을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 저축을 권장하기 위해 국가는 ‘저축의 날’을 지정하여 저축 유공자를 포상하였고, 저축추진중앙위원회²⁾가 설립되어 저축을 권장하였으며, 학생들은 의무적으로 매달 저축을 해야 했다.³⁾ 또한 저축의 날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나서 담화를 하여 국민의 저축심을 고취했다. <범국민 저축운동>(국립영화제작소, 한호기, 1965; 범국민 저축운동에 즈음하여(다른 제명), 한국정책방송원 VOD 소장)에는 제2회 저축의 날 기념 박정희 대통령의 연설이 담겨있는데,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성취에 필요한 “내자의

조달”은 “국민 스스로가 해결할 일”이라고 책임 소재를 밝히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국가와 각종 금융기관, 단체들은 한목소리로 국민들에게 저축을 호소했고 그것이 부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이다.

이처럼 박정희 시기에 제작된 동일한 소재의 문화영화는 대체로 일관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립영화제작소가 제작한 <저축을 합시다>(1962; 한국정책방송원 VOD 소장)에서는 저축이 사회 혼란을 가져오는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며 마지막에 “너도 1원 나도 1원 3천만이 3천만 원”, “자기 위해 저축한 돈 나라 위해 쓰여진다”라는 표어가 등장한다. 역시 국립영화제작소에서 제작한 <새마을 14집(남비는 우리의 적)>(김학수, 1968; KOFA 16mm RP 소장)에서는 해설자 김희갑이 저축을 하면 “가만히 앉아서 재산을 늘리고 국가 경제에 이바지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목소리는 비단 국립영화제작소가 제작한 영상에서만 두드러지는 것은 아니다. 컬렉션에 속하는 작품 중에는 한국영상자료원에 시나리오와 심의서류가 소장된 민간 제작사의 문화영화가 상당수 있는데, 그중 심의서류에 명시된 작품 제작의 목적과 줄거리에도 그러한 “국가 경제 발전”에 대한 강박은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눈에 띄는 지점은 국가가 제작한 영상들이 총체적인 금융을 권장하고 있다면, 민간이 제작한 문화영화에서는 저축 외의 구체적인 금융 방안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고 권장하는 경향이 더 강하다는 점이다. 비록 몇 가지 사례에 국한된 해석일 수도 있지만, 국가가 보다 거시적인 지향점을 제시했다면, 민간은 미처 설명되거나 강조되지 못한 세부 지점들을 다루고 있다고도 보여진다. 예를 들어, 현재 시나리오와 심의서류가 남아 있는 흑백문화영화연구소의 <생활과 보험>(김상봉, 1964; KOFA 시나리오·심의서류

- 2) 저축추진중앙위원회는 1969년에 “국민 저축의 자발적인 증가”를 목적으로 설립된 민간 단체로, 저축의 날 행사를 주관하였다.
- 3) 학생 저축은 1962년도부터 정부의 국민저축운동 일환으로 실시되었다. 매년 국민저축운동의 목표액이 세워졌고, 이 목표액이 증액됨에 따라 학생들의 저축 부담금도 올랐다. 1964년에는 학생 저축이 2배로 인상되었는데 국민학생 기준으로 매달 5원을 저축해야 했다. 반강제적이었으나 표면적으로는 자율적이었던 이 학생 저축은 1973년에 의무화되어 문교부 주도로 ‘전학생 1인 2통장제’가 실시되었다. 그러나 가계의 부담을 가중한다는 비판 등으로 바로 이듬해 학생조합저축은 폐지되고 대신 국민저축조합 신설로 재편되며 사라졌다. 그러나 1988년 기사에서 “금융당국은 강제 저축 성격이 남아있는 학생 저축은 모두 폐지할 방침”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보아, 실질적으로 강제적 성격의 학생 저축이 사라진 것은 1988년 이후로 보인다. 『學生貯蓄』, 『경향신문』, 1965. 4.10.; 「내년부터 學生貯蓄 의무화」, 『경향신문』, 1973.10.15.; 「學生貯蓄 폐지」, 『조선일보』, 1974. 1.30.; 「용돈 절약 학생 저축 어떻게 좋을까」, 『동아일보』, 1988. 8. 3. 참조.

소장)은 보험을 통해 불의의 재난을 극복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국민의 저축 성향을 높여 국민 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내용으로 보인다. 대영동화촬영소의 <너도한주 나도한주>(신능파, 1968; KOFA 시나리오·심의서류 소장), 서울영화사의 <보람찬 주식투자>(강일홍, 1968; KOFA 시나리오·심의서류 소장)는 한국증권거래소를 홍보하고 주식 투자의 이점을 설명하며, 주식 투자가 국가의 부강으로 이어지고 나라의 산업 자금이 된다는 것을 줄거리로 제시하고 있다.

한편 농협과 수협 등 지역 협동조합의 저축을 계몽하는 작품도 컬렉션에 포함되어 있다.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이익을 증대하려는 경제적 조직으로 금융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⁴⁾ 농협(1961년), 수협(1962년), 신협(1960년), 산림조합(1962년) 등 수많은 협동조합이 박정희 정권 초기에 조직되었다. 이들은 조합원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농사법 개량이나 판로 구축 등에도 힘썼지만, 조합원의 금융도 적극적으로 장려했다. 현재 시나리오로 남아 있는 1973년 서울문화프로모션의 작품 <술메마을의 빛나는 저축>(서울문화프로모션, 양종해; KOFA 시나리오·심의서류 소장)은 수협중앙회와 농협중앙회가 제공에 참여한 작품으로, ‘농어촌 1조억 저축’을 위한 계몽영화이다. <해바라기꿈>(농협중앙위원회, 강위수, 1974; KOFA 심의서류 소장), <민경이의 꿈>(농업협동조합중앙회, 강위수, 1978; KOFA 시나리오·심의서류 소장)처럼 농협중앙위원회에서 자체 제작한 작품들도 있다. 이는 농업협동조합의 지부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계몽 문화영화로, 조합원을 교육함과 더불어 저축을 장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협동조합의 저축 장려 영화들은 국가보다는 작지만 역시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함께’

잘 살기 위한 저축을 권장하고 있다. 예시로 거론한 작품 외에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본 컬렉션에 포함되는 대부분의 작품은 저축과 금융 행위의 윤리적인 측면과 대의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는 경제적 고난에 직면하여 국가와 국민이 비교적 쉽게 단결할 수 있었던 역사적 순간을 보여주며, 국민의 작은 돈마저 간절히 모으고자 했던 당시 정부의 경제적 강박을 보여주기도 한다. 그러나 권장을 넘여 국민의 의무처럼 주어진 저축의 시대를 현재의 관점에서 보고 있자면 당시의 경제개발정책은 서민의 돈까지 ‘차관’하여 이룩하였던 성과라는 인상을 받게 된다.

2. 금융의 ‘현대화’

본 컬렉션에 포함되는 영상 중 상당수는 국민들의 은행 이용을 위해 은행 업무와 장점을 적극적으로 설명, 소개하고 있다. 또한 이와 더불어 ‘계’와 같은 전근대적인 금융 방식을 매우 비판적으로 그리고 있다. 돈을 아무리 열심히 벌고 아껴도 국가 입장에서 그 돈이 항아리에 묻히거나 계를 통해 돌고 있으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많은 작품에서 은행의 예·적금은 계에 비해 더 근대화된 것, 문명화된 대상으로 그려진다. 또한 전근대적 금융사고에 머물러 있는 이들에 대한 계도적인 목소리를 강하게 보여준다.

이를 잘 보여주는 작품 중 하나로, 먼저 국립영화제작소의 <새 생활의 설계>(박정근, 1965; 새로운 생활설계(다른 제명), 한국정책방송원 VOD 소장)를 볼 수 있다. 이 작품은 일수와 계를 예로 들며 이를 은행과 대조하고 있다. 그리고 돈이란 “뇌두는 게 아니라

4) 모든 협동조합이 금융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현재 한국에서 금융업무를 취급하는 조합은 상호금융으로 분류된다.

놀려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즉, 은행의 장점을 설명하고 저축의 필요성을 교육시키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 작품에서는 이익을 위해 일수를 놓거나 돈이 필요하면 사채를 떠올리는 전근대적 사고의 어머니를 교육의 대상으로 놓고, 아버지와 교육받은 딸이 어머니의 전근대적 사고를 계도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새마을 14집(낭비는 우리의 적)〉(국립영화제작소, 김학수, 1968; KOFA 16mm RP 소장)에서는 서독의 예시를 들며, 저축을 통해 부자가 된 나라가 있다는 정보를 제공한다. 그리고 1965년 금리 현실화⁵⁾를 이야기하며 은행 금리와 상품을 홍보하고 은행 저축이 가지는 여러 가지 의미와 역할을 교육하고 있다. 앞의 1장에서 언급한 국립영화제작소의 1976년 작품 〈행복으로 가는 길임〉(김성인)은 ‘종합가계예금’이라는 상품을 홍보하는 것으로, 은행을 통해 주택자금도 용자가 가능하며 저축 외에도 증권과 채권 보험 등 다양한 상품이 있음을 이야기한다. 이는 은행의 문턱이 높았던 시기, 은행의 장점과 각종 신규 상품을 국민에게 이해시켜야 했던 정부의 입장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한편 은행의 대척점으로 제시되는 것이 민간에 머무르고 있는 돈이다. 그 상징처럼 언급되는 것이 바로 계인데, 바로 위에서 언급한 〈새 생활의 설계〉 외에도 다양한 작품들에서 계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국립영화제작소의 〈어느 보람〉(박정근, 1969; 한국정책방송원 VOD 소장), 〈언덕 위의 하얀집〉(박정근, 1978; 내 집 마련(다른 제명), 한국정책방송원 VOD 소장)에서는 공통적으로 계가 깨지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이는 금융을 대하는 사고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다. 또한 〈행복의 설계〉(삼진영화제작소, 김

학수, 1975; KOFA 시나리오·심의서류 소장)는 증권투자를 홍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증권이 계나 부동산 투자보다 안전하고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보람의 열매〉(금융영화제작소, 김정식, 1980; KOFA 시나리오·심의서류 소장)는 억척스럽고 성실하게 돈만 모으던 시골 아낙네가 은행 예금을 알게 되면서 이를 통해 자산을 증식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금융기관의 업무와 존재, 새로운 금융상품을 홍보하는 작품들에서도 금융 의식을 근대화하려는 경향이 엿보인다. 〈생활과 보험〉(흑백문화영화연구소, 김상봉, 1964; KOFA 시나리오·심의서류 소장), 〈행복의 추구〉(신영문화영화사, 이원일, 1967; KOFA 시나리오·심의서류 소장), 〈꽃은날에 대비하자〉(한국교육영화사, 최성민, 1970; KOFA 시나리오·심의서류 소장) 등은 현대에 새롭게 도입된 보험의 개념과 장점을 적극적으로 소개하며, 보험과 저축 모두 안전한 기관에 위탁함으로써 미래를 대비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너도한주 나도한주〉(대영동화촬영소, 신능파, 1968; KOFA 시나리오·심의서류 소장)는 주식 거래 방법과 안정성을 소개하고 증권거래소의 존재를 알리고 있다. 한편 〈증권시장〉(서울영화사, 서병현, 1968; KOFA 시나리오·심의서류 소장)도 한국증권거래소가 취급하는 증권을 소개하고 투자 이점을 설명하고 있는데, 심의서류에는 “증권 거래에 대한 국민계몽용”이라는 제작 의도가 명시되어 있다. 〈즐거운 나의 집〉(보림예술영화사, 이정실, 1969; KOFA 시나리오·심의서류 소장)은 한국주택은행을 홍보하고 있으며, 〈행복한 우리가정〉(대영문화영화사, 강일홍, 1969; KOFA 시나리오·심의서류 소장)은 대한주택공사를 알리고 있다. 〈은행과 우리생활〉(공공문화영화사, 손영수, 1972; KOFA 시나리오·심의서류 소장)은 국민학교 교과목 교재 내용을 영상화한 것으로, 한국은행과 일반

5) 예금 금리 인상을 통해 예금을 도모하고자 했던 정책으로, 이로 인해 예금 금리가 대폭 상향 조정되었다. 위에서 언급한 〈새마을 14집(낭비는 우리의 적)〉과 〈새로운 생활설계〉에서는 이 예금 금리 인상을 적극적으로 설명, 홍보하고 있다.

은행의 업무를 소개하고, 이를 통해 은행을 더 잘 이용하도록 장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계도적 의도가 강한 작품 중 하나인 1969년 국립영화제작소의 <춘앵무>(한호기, 1969; 한국정책방송원 VOD 소장)는 경제관념이 어두운 무녀를 주인공으로, 관리가 전혀 안 되던 재산을 국가의 신탁은행에 맡겨 보람찬 미래를 담보 받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상의 예시를 통해 1960년대에서 1970년대를 중심으로 여전히 금융기관과 은행에 대한 이해가 보편적이지 않았음을 알 수 있으며, 낮은 금융기관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현대의 금융 제도에 익숙하지 못한 국민을 ‘교육’하는 것이 필요했던 국가를 상상할 수 있다. 이상의 작품들에서 은행을 이용할 줄 모르거나, 은행보다 사채나 계를 익숙하게 대하는 태도, 보험이나 저축을 홀대하는 태도는 현대화되지 못하고 지양되어야 할 모습으로 제시되었다. 조국 근대화와 경제 발전을 위한 윤리적인 호소 외에도, 국민들이 돈이라는 실물을 보이지 않는 숫자로 받아들이게끔 하는 데 또 다른 방법이 필요했던 것이다.

3. 부동산 사회의 씨앗이 된 ‘내 집’ 마련

본 컬렉션에 속하는 작품들에서 저축의 목적으로 가장 빈번하게 제시하는 것은 ‘내 집 마련’, ‘자식 교육’, ‘경제 발전’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내 집 마련’이란 목적 혹은 구호는 오늘날 한국 경제를 ‘부동산 불패 신화’로 만든 원류를 형성했다는 점에서 별도로 짚어볼 필요가 있다. 주택 공급을 위해 대규모 택지 개발이 진행되면서 대

도시를 중심으로 땅값은 재편되었고, 건설사는 재벌로 도약하였으며, 사람들은 그 어떤 금융 수단보다 ‘투기’에 현혹되기 시작했다. 물론 컬렉션의 문화영화들에서 ‘내 집’을 강조하던 맥락에 처음부터 부동산 투기의 그림이 있었는지는 보여지지 않는다. 그러나 그를 위한 기반이 만들어지고 있음은 명확히 찾아볼 수 있다.

‘내 집’을 다루는 방식에서 투기나 자산의 개념보다 먼저 강조된 것은 기초 자산이자 삶의 공간으로서의 집이었다. 저축 등 금융 행위를 적극적으로 권유한 목적이 빈곤한 삶을 타파하는 데 있었다는 점을 상기해 보자면, 당시 삶의 악조건 중 가장 큰 문제는 ‘내 집’의 부재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집은 자산이기 이전에 삶에 필요한 필수 조건이자, 월세를 아껴 돈을 모으기 위해 선결되어야 할 문제였다. 그렇기에 여러 작품에서는 자연스럽게 저축을 집을 사기 위한 과정으로 제시하고 있다.

세기상사주식회사가 제작한 <내집을 갖자>(박근태, 1969; KOFA 35mm ON·시나리오·심의서류 소장)는 내 집을 갖기 위한 지름길로 저축을 제시한다. <저축하는 생활>(한주필립, 박민길, 1970; KOFA 시나리오·심의서류 소장)도 비슷한 관점에서 저축으로 내 집을 마련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저축하는 생활이 갖는 이점을 보여준다. 국립영화제작소 제작의 <남몰래 묻은 향아리>(나한태, 1972; KOFA 16mm·35mm RP 소장)에서는 여인 혼자 악착같이 돈을 아끼고 모은 결과 집을 장만하며, <가난은 없다>(국립영화제작소, 김기풍, 1977; KOFA 35mm RP 소장)에서도 경제적 고난 속에서 은행을 처음 찾은 주인공 부부가 노력 끝에 자기 가계와 집을 마련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보람의 열매>(금융영화제작소, 김정식, 1980; KOFA 시나리오·심의서류 소장)에서는 은행 저축을 통해 땅과 집을 마련하고, <주부일기>(국립영화제작소, 한탁성, 1968; KOFA 16mm RP 소장)에서

역시 주인공 부부는 열심히 모은 돈으로 야산을 사서 개간한다. 즉, 이러한 작품들에서 집이나 땅은 돈을 모아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였고 자립과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존재였다.

한편 몇몇 작품들에서는 ‘내 집을 가져라’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월세, 시골세 등의 서러움을 표현하였다. 국립영화제작소의 〈집(주택)〉(강대철(추정), 1965; 한국정책방송원 VOD 소장)은 “세상살이 설움도 많지만 집 없는 설움처럼 마음을 가난하게 만드는 설움도 드물다”라는 주인공의 내레이션으로 시작한다. 주인공은 한국주택금고의 도움을 받아 드디어 자신의 집을 짓는다. 〈언덕 위의 하얀집〉(국립영화제작소, 박정근, 1978; 내 집 마련(다른 제명), 한국정책방송원 VOD 소장)에서는 전셋집을 전전하며 십년간 열 차례 이사했다는 주인공 부부가 주인집 할머니로부터 천대받는 모습을 담으며, 이같이 집 없는 설움을 해결해 주는 국가의 제도로 재형저축을 선전한다.

이러한 작품들은 저축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저축의 대가로 ‘내 집’을 제시하여 진정한 자립의 모델을 보여주거나, 서러운 삶을 벗어나려면 ‘내 집’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며 내 집 마련의 당위성을 주장한다. 따라서 이 시기,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해 국가가 정책적으로 한 일련의 조치들은 모두 긍정적으로 그려진다. 〈건설의 보람(주택편)〉(국립영화제작소, 양종해, 1965; 한국정책방송원 VOD 소장)은 전국적인 주택난을 해소할 방안으로 대한주택공사의 전국 택지 개발과 고층 주택을 자랑한다. 이러한 토지의 효율을 극대화한 주택 양식이 얼마나 많은 무주택자에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며 말이다. 〈행복한 우리가정〉(대영문화영화사, 강일홍, 1969; KOFA 시나리오·심의서류 소장)이나 〈다듬어지는 서울〉(삼미문화공사, 박찬, 1971; KOFA 시나리오·

심의서류 소장)도 대한주택공사, 서울시 등이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리고 있다. 오늘날, 땅 투기의 근원이자 도시 경관을 해치고 건설사의 잇속을 채워줬다고 생각되는 대규모 택지 개발과 고층 아파트, 대단지 아파트가 당시에 어떻게 비쳤는지를 알 수 있는 지점이다.

그러나 1980년대에 만들어진 몇 편의 작품들에서는 주택에 대한 다른 관점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국립영화제작소의 〈우리 모두를 위한 토지공개념〉(도상선, 1989; KOFA 16mm RP 소장)은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을 다루고 있다. 부동산 투기로 인하여 토지의 공개념이 사라졌고, 핵가족화가 진행되면서 더 많은 주택 공급이 필요한데 내 집 마련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진 점을 지적하며, 이를 시정하기 위해 국가가 시행할 조치들을 선전한다. 역시 국립영화제작소의 〈천만인의 내 집 마련〉(김항원, 1992; KOFA 35mm RP 소장)도 대규모 주택 건설을 통해 천만 명이 내 집을 갖게 된 성과를 이야기하면서 한편으로 1991년 이후 집값이 하락하고 땅값이 안정세임을 강조하고 있다. 같은 해에 제작된 국립영화제작소의 〈달라진 우리생활〉(1992; 한국정책방송원 VOD 소장) 역시 집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하며, 땅값 상승 억제와 부동산 투기 단절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즉, 1970년대까지 일면 현명하고 도의적인 차원에서 행해졌던 내 집 마련을 위한 일련의 조치들과 건설 붐이 불러놓은 씨앗들이 1980년대부터 부동산 투기로 발아한 것이다. 1990년대를 전후로 한 문화영화들이 내 집 마련과 동시에 투기 단절의 목소리를 강하게 내는 것을 보면, 1980년대 이후 수많은 금융자본이 부동산으로 집중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대규모 주택과 택지 개발이 불러온 부동산 공화국의

역사를 이미 한 번 경험하고서도 더 높게 재개발되고 있는 아파트들을 보면, 부동산이라는 재테크 방식이 한국사회에 얼마나 뿌리를 깊게 내렸는지를 실감할 수 있다. 내 집을 다룬 문화영화를 돌아봄으로써 바로 이러한 한국사회를 지배하는 부동산과 열의 시작에는 정책적으로 장려되었던 ‘내 집 마련’이 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를 생각해볼 수 있다.

4. 나가며

「문화영화로 보는 한국의 재테크와 금융」 컬렉션에서 다루는 73편의 작품에서 서민 경제가 얼마나 국가와 긴밀하게 연결되고 있고 기획되었는지를 객관적으로 조망할 수 있었다. 그리고 박정희 정권 시기의 경제 개발이 서민 경제의 영역과 연결되는 양상을 상세하게 볼 수 있었다. 이 글에서는 크게 세 가지 맥락만을 살펴보았지만, 이 73편의 작품들은 훨씬 다양한 현대사의 지점들과 연결되어 있다. 예컨대, 전쟁 이후 낙담하고 소외된 이들을 위한 저축과 자활의 서사, 여성에게 가계부 쓰기를 장려하는 등 성별로 분담되었던 금융, 역시 알뜰 주부상 등 여성 위주로 그려졌던 저축상수상자와 저축 수기의 주인공들, 새마을 운동과 결합하여 저축을 강조하던 방식들, 해외 근로자 파견 장려를 위한 재형저축 상품과 주택 특별공급, 해외여행 자유화 이후 사치의 주적(主敵)으로 분류된 해외여행 등 금융과 재테크를 그리는 양상에서 읽히는 시대상은 매우 다양하다. 이번 컬렉션 작품들이 금융과 재테크의 사회적 조건들을 입체적으로 다양하게 접근해 보는 자료가 되길 바란다.